

# 대중화 시대의 프랑스 고등교육 변화와 교육정책(개혁)

김 성 룡 대교협 객원연구원

오늘날의 고등교육은 대부분의 선진 개발국에서는 대 중교육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최고 상위 교육기관 으로서, 현 사회의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요구하에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고등교육은 학생인구의 가속된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점 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 시대의 고등교육은 결 국 이중적 목적성을 가지게 된다.

우선, 오늘날의 고등교육은 현 사회의 사회·경제적 요 구에 따라 가능한 많은 수의 인구(대중 인구)를 대상으 로 하여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는 한 국가의 부가 자연자원, 물적자원에서, 지적 자원의 질과 양으로 표현되는 세계화, 정보화의 현 시대 적 요구라 할 수 있으며, 한 개인에게는 평생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대중 고등교육은 학생의 양적 증가에서 오는 문제점의 예측과 그 해결을 또한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양적 발전에서 오는 제반 질적 문제로, 특히 교육 여건의 악화, 학생의 학업중 유급, 중도탈락 문제 및 졸업 후의 실업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대중 고등교육의 이중적 목적성에 따라 제기되는 제 문 제점은 또한 그 해결책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과 개혁 을 필요로 하게 된다.

프랑스의 고등교육 역시 이러한 양상과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중 대학 초급과정 1, 2년 학생의 학업중 유급, 중도탈락 문제는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랑스 고유의 교육정책과 개 혁이 적용, 실시되고 있다.

대중화 시대의 이러한 프랑스 고등교육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 1. 프랑스 고등교육 학생인구의 변화

프랑스 고등교육 학생인구의 변화는 1960년대의 프 랑스 중등교육의 양적 발전에서 시작되며, 이는 또한 관 계 중등교육 정책의 변화와 교육개혁에서 비롯된다.

프랑스는 '50년대 중엽부터 2차 세계대전 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작한다. 따라서 프랑스 사회는 경제적 필요 성과, 생활향상에 따른 교육 수요의 증가, 또한 'Baby boom' 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중등교육 대상 인구의 급격 한 증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교육당국은 개방화와 다양 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1959년 교육개혁(일명 Berthoin 개혁)을 실시하여, 급증한 중등교육 수요를 흡수 수용하 게 된다(이 개방화, 다양화 원칙은 '60~'70년대의 모든

중요 교육개혁에 반영되었으며, 나아가 '80~'90년대 프랑스 고등교육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1959년 Berthoin 개혁은 개방화·다양화 원칙을 표방하고 과거의 합격, 불합격 입시제도의 취사선택적 교육제도를 지양하고, 교육지원 대상자를 우선 수용 후에 차등적 재분할 편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은 장단기 및 실업, 인문계로 차등 분할 편성되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종전 엘리트 위주의 교육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프랑스 중등교육은 개방화·다양화를 원칙으로 대중화되었으며, 사회 엘리트 계급을 위한 중등교육 또한 계속 실행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개방화·다양화의 교육정책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당시의 지배계급(bourgeoisie)은 새로운 문제, 아니 하나의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즉, 그들은 국가경제가 필요로 하는 서민계급(proletariat)을 교육·양성하여야 했으며, 동시에 차등적 교육으로 인한 그들 교유의 사회적 기득권을 서민계급으로부터 지켜야 했다.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여 지배계급은 기존의 취사선택적(합격/불합격) 입시제도 대신에 우선 수용 후 차등 분할 편성하는 입시제도를 채택한다.

그럼으로써, 중등교육은 서민계급에 개방되었고 지배계급은 필요로 하는 서민계급을 교육·양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차등 분할적 교육계도로 교육 후의 직업을 계급화하여 그들은 해당 엘리트 교육 후에 사회적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등교육 정책과 개혁으로 인한 중등학생 인구의 쇠퇴적 증가 이후, 프랑스의 고등교육 학생인구는 '60년대를 시작으로 급격한 증가를(연평균 증가율 : 12.13 % ('58년 ~ '63년), 10.57 % ('63년 ~ '69년)) 보이기 시작한다. 이후, 갑작스런 낮은 증가율을 줄곧 보였으며(연평균 증가율 : 3.55 % ('70년 ~ '87년)), '80년대말, '90년대 초에는 해당 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다시 증가추세를(연평균 증가율 : 6.70%('87년~'93년)) 보이

다가 최근에는 거의 증가 성장을 멈춘 상태를 기록한다(연평균 증가율 : 0.94 % ('93년~'96년)).

'80~'90년대의 프랑스 고등교육 학생인구의 재 증가는 '80년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의 대량 유입에서 비롯된다. 이는 '60년대에 중학교에 발생했던 경우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학생 수에 있어서는 폭발적인 증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80년대의 고등학교에서의 변화는 고등학교 적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교육연한의 연장에서 비롯된다. 이는 적령인구 중 Baccalaureat(수능고사에 해당함) 합격자의 증가 비율에서 나타나고(1981년: 33.5 %, 1991년: 58.3 %), 또한 고등학교 진학률의 증가에서도 볼 수 있다(15~16세의 고등학교 진학률 : 1981년: 38%, 1991년: 57%).

이렇게 '80~'90년대의 프랑스 대중 고등교육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증가 후에 그 증가율의 상승세가 시작된다(반면 실업계 고등학생 수는 역으로 감소를 나타낸다).

또한, 프랑스 고등교육 학생인구의 이러한 양적 발전은 내부변화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대학기관에 비해 비대학기관(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 고등 전문학교와 그 준비반)의 높은 증가 성장률로 나타난다. 특히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인 IUT와 STS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한다((연평균 증가율 : IUT : 27.15 % ('68년~'73년), 6.07 % ('87년~'96년), STS : 11.0 % ('63년~'79년), 10.87 % ('80년~'92년)).

이러한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의 괄목할 만한 양적 발전은 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서 '80~'90년대 프랑스 고등교육의 발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결국 연구와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학기관에 비해 직업 기술교육 위주의 비대학 기관의 상대적 양적 발전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프랑스를 비롯한 타 선진 개발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와 교육 목적의 프랑스 대학기관 역시 대중

화의 양적 발전 속에 직업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대학기관 내에 여러 직업교육 과정의 학제가 신설되고 또한 직업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사 비대학기관이 창설된다.

실제로, MIAGE(회계 응용전산 석사:1971년), MST(이공계 석사:1971년), DESS(대학 3기 전문과정:1974년), DEUST(과학기술 전문과정:1984년), Magistere(전문 공학기사 과정:1985년), IUFM(교원 양성 Institute :1991년), IUP(공학기사 양성 전문 Institute :1991년) 등이 대학내 신 교육과정 또는 대학 부설기관으로서 신설되며, 비대학기관 못지 않은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프랑스 고등교육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프랑스 대학기관은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프랑스 고등교육의 대중화의 중추기관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는 대학기관 학생인구가 프랑스 전체 고등교육 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62% : '97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양적 증가와 내부변화를 거듭하면서 프랑스 고등교육 학생인구는 1958년의 약 22만 명에서 1997년도에는 213만 명으로 무려, 10여 배의 증가를 기록하게 되며, 고등교육의 취학률 또한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고등교육 취학률: 1970년 : 19.5%, 1980년 : 25.5%, 1986년 : 30%, 1993년 : 49.7%). 이렇게 프랑스 고등교육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대중화가 시작되고, '80~'90년대에는 대중화의 보편화 단계에 이른다.

## 2. 프랑스 고등교육 제도

프랑스 고등교육은 오래 전부터 개방(무시험)제도와 선발제도를 병행하는 입학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실제로, 개방제도에 의해 모든 Baccalaureat 합격자에 대해서, 대학기관(학사과정:3년, 석사과정:2년, 박

사 준비과정:1년, 박사 본과정:2~4년)은 선발시험 없이 학군제에 의한 무시험 입학에 허용하고 있으며,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과 고등 전문학교(Grande ecole : 준비반 후 3년 과정) 그리고 그 준비반(2년 과정)에서는 Baccalaureat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에 의한 학생 선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 후의 학년 진급제도는 입학 선발시험이 있는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과 고등 전문학교(Grande ecole) 그리고 그 준비반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학년 상급반으로 진급하게 되는 자동 진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반면 대학기관은 입학 후 매년 상당수(특히 대학 1, 2년의 경우 20~30%)에 해당 하는 학생 수에 한해 유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의 고등교육 지원자(고등학생)의 입학 선호도는 고등 전문학교 준비반(이 준비반 졸업생은 졸업 후 고등 전문학교 입학시험을 치름),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 그리고 대학순의 차별 선호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 고등교육은 주요 3그룹의 고등교육 기관(대학기관,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 고등 전문학교(Grande ecole))에 따른 다양한 제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교육기관의 주 교육 내용과 졸업 후 취업진로 역시 크게 특색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고등 전문학교(Grande ecole)는 프랑스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분야에 걸쳐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은 준급의 기사 또는 상업계 인력을 양성하며, 끝으로 대학기관은 모든 분야에 걸친 필요 인력양성이 가능한 한편, 학술 연구기관으로서의 그 특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대학기관은 고등교육이 대중화 됨에 따른 대량의 Baccalaureat 합격자를 무시험 개방제도로 입학, 교육 시킴으로 프랑스 대중 고등교육의 중요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프랑스 고등교육은 다양한 제도, 편제에 따라, 개방화·다양화의 외형적 또는 내용적으로 뚜렷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바로 오늘날의 대중 고등교육의 급변하는 사회·경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이런 다양하고 특성있는 교육제도는 한국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교육기관간에 흔히 발생될 수 있는 학생간의 심리적 우열성 문제 또는 사회의 배타적 차별인식을 지양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크게 3그룹으로 구분되는 프랑스의 교육기관이 각 그룹 교육기관 내에서의 차별적 선호도가 거의 없는 실정에 기인하며(특히 대학기관은 학군제에 의해 평준화된 실정임), 또한 3그룹의 각 교육기관이 각자 특성있는 고유의 교육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진로에 있어서도 차등적이긴 하지만 각 기관 교육내용을 특성있게 발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프랑스 고등교육의 비차등적이며 비배타적인 운영실태는 프랑스 전체 고등교육 학생 수에 대한 각 3그룹 교육기관의 학생 수의 비중 정도에 의해 그 긍정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먼저, 대학기관은 프랑스 고등교육 전체 학생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62% : '97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은 16%('97년), 끝으로 고등 전문학교(Grande ecole)와 그 준비반은 12%('97년)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최하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학기관의 높은 비중도는 대학기관 학생의 타 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심리적 우열 문제를 배제시켜주며, 또한 타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의 상대적 차별인식을 한층 감소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학군제의 철저한 무시형 선발제에 의한 대학기관의 평준화로 한층 더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은 운영 주체(국립 또는

사립)에 따른 아주 저렴한 학비를 등록금으로 하고 있다. 즉,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은 일부의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국립기관이며, 학교 운영비가 국가에 의해 부담됨에 따라 학교 등록금이 20만 원 미만인(1년 기준) 아주 적은 액수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고등교육의 저렴한 학비는 개인의 고등교육 취학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미래의 프랑스 고등교육, 또한 국가의 발전, 번영에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한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양과 높은 질의 고등교육 인력을 사회·경제적 요구에 공급할 수 있는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오늘날의 대중 고등교육은 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절대 다수의 고등교육 기관이 사립기관이며(전체 대학의 약 70% 이상, 전체 전문대학의 약 85% 이상이 사립기관에 해당한다),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학비가 약 450만 원에(1년 기준) 달한다. 이러한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비싼 학비는 한국의 물건 구매력이 프랑스에 비해 월등함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현재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 전망은 프랑스에 비해 보다 부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의 발전과 번영 역시 상대적 회의를 보여준다 하겠다. 결국 프랑스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의 국립 운영에 의한 학생 학비 부담은 장기적으로 보아 효율성 높은 국가 차원의 투자라 하겠다.

### 3. 프랑스 고등교육의 문제점

'80~'90년대에 프랑스 국가경제는 점점 더 발전을 계속하게 된다. 경제 생산성은 현 사회에서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며 경제성의 위력은 사회전반에 나타나게 된다. 제반 사상과 이념은 이전과 같은 존재가치를 찾을 수 없으며 인간은 생산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교육 현실은 전적으로 경제논리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발전에 따르는 제반 질적 문제의 하나로서, 모든 baccalaureat 합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 등록을 허용하는 무시험 선발, 개방제도의 프랑스 대학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대량유급, 중도탈락 문제의 심각성(특히 대학 초급과정 1, 2년 학생들의)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프랑스 대학에서 이러한 학생의 유급, 중도탈락 현상은 경제논리, 즉 생산성의 역황조건으로 교육정책, 개혁의 우선적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의 CEREQ 교육, 직업문제연구소의 1976에서 1980년 간의 일정 대학 입학생의 2년 후의 결과상황 연구조사에 의하면, 그 중 34%의 학생이 유급, 중도탈락하였고, 27%의 학생이 타 학교로 이전하였으며, 단지 39%의 학생만이 3년 과정에 진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프랑스 대학 초급과정 1, 2년생의 심각한 유급, 중도탈락 현상은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의 이중적 학생 선발제도의 비정상적 운영실태에 기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프랑스 대학기관 학생은 많은 수가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 입학을 목적으로 준비하였던 실업계 Baccalaureat 출신 합격자들로 상대적 상위 실력의 인문계 Baccalaureat 출신 합격자에 의해, 대학에 비해 상위 선호도의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 선발시험에서 밀려나 어쩔수 없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 열세의 실력을 가진 실업계 Baccalaureat 출신 입학생들은 대학입학 후 준비, 학습하지 않은 교과 과목을 수강해야 되며, 이는 자연적으로 이 부류 학생들의

대량 유급, 중도탈락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 학교 시설의 수용능력,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능력과 경제 수요를 고려할 때, 극 다수 학생의 입학을 허용해야 하는 대학의 무시험 선발, 개방제도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프랑스 대학 초급과정에 있어 학생의 대량 유급과 중도탈락은 고등교육의 개방화, 다양화에 예견된 결과였으며, 결국 질적 근로자를 위한 선별적 교육은 학생의 유급과 중도탈락을 오히려 필요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갖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의 유급과 중도탈락을 지양하는 교육정책은 또한 그 자체적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타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불평등 구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과 다른, 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함은 타인의 상대적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함은 남보다 앞서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요구함은 일종의 모순인 것이다.

한편, 프랑스 대학 초급과정 학생의 유급, 중도탈락이 교육제도에서 오는 불가피하고, 또한 그 자체적 모순적 문제라 하여도 교육제도 조정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그 교육적 손실의 최소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성의 모순적 문제에 직면한 프랑스 교육당국은 해결책으로 새로운 교육정책과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 4. 프랑스 고등교육 정책(개혁)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제반 질적 문제에 프랑스 교육당국은 대응책의 여러 교육정책과 개혁을 실시, 적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반 교육정책, 개혁 가운데, 특히 1984년 1월 26일 교육법(일명 Savary 개

혁)과 1989년 7월 10일 교육법을 꼽을 수 있다. 1984년 1월 26일 교육법(Savary 개혁)은 대중화에 따르는 대학 초급과정(대학 1, 2년) 학생의 유급, 중도탈락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문제해결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1989년 7월 10일 교육법은 예상되는 필요한 사회·경제인력에 따라 각 교육 수준별 졸업생을 조절 양성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문제 해결책을 넘어선 '90년대 프랑스 대중 고등교육의 발전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먼저, 1984년 1월 26일에 발표된 교육법인 Savary 개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프랑스 대학 초급과정 학생의 유급, 중도탈락의 교육적 손실은, 비록 대학 선발제도인 무시험 선발, 개방제도에서 기인되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과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이는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 조치와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Savary 개혁은 제반 구체적 목표와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개혁법안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또한 직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 과학,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 문화, 과학, 기술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위와 같은 고등교육의 주요 사명하에 프랑스 고등교육 초급과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성을 갖는다.

- 학생 개인에게 졸업후 직업분야에서 요구되는 근본 지식을 심화, 다양화하고 학업 방법과 연구 의욕감을 성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 개인에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기본 지식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 또한 직업 선택에 있어 필요한 제반 요소의 통합 능력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3년 과정으로의 진급을

준비할 수 있게끔, 또는 자격증 취득 후에 원하는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초급 과정의 목적성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갖게 된다.

- 학생의 학교교육 적응을 위한, 또한 전공 선택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 마련
- 학생 전공 선택의 다양화
- 전공 선택 후의 교육결과에 따른 취업 선택시, 직장 선택 가능성의 다양화
- 직업 교육의 활성화
-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이러한, 목적성과 제반 교육방안을 갖고 Savary 개혁은 프랑스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르는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Savary 개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대학 초급과정 학생의 유급,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이중적 학생 선발제도의 비정상적 운영 지양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Savary 개혁은 대학 초급과정에서 유급,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을 핵심 방안으로 하며, Orientation 교육, 주전공 교육, 다전공 교육, 직업화 교육, 기초언어 교육을 주목적으로 기존의 대학 2년 초급과정(DEUG)의 개혁을 감행하며, 또한 DEUST라는 과학, 기술 교육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초급 과정을 대학내에 신설하게 된다. 이 과학, 기술교육의 취업 목적의 DEUST 초급과정의 대학내 신설은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과의 유사성격으로 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였던 실업계 Baccalaureat 출신 합격자들을 대량 흡수하게 되고, 또한 유사 직업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 대학 초급과정 학생의 유급, 중도탈락 감소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고등교육의 대중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교육정책은 '90년대에 들어서는 고등교육 대중화 발전 교육정책으로 이어지는데, 1989년 7월 10일 교

육법에서 이러한 교육정책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프랑스 국가경제는 발전, 변화를 계속해, 질적, 양적인 면에서 좀 더 면밀한 계획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총 고용 직장수에 대한 졸업생수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90년대 교육정책은 총 고용 직장수를 예측하고, 졸업생 수의 변천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교육상황에서 교육당국은 2000년까지 적령인구 80%의 Baccalaureat 수준의 교육화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90년대의 대중 고등교육의 발전 교육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 교육정책이 시작되는 가운데, 1989년 7월 10일 교육법이 발기되며 80%의 교육목표는 이 교육법의 원문에 명확히 다음과 같이 명기된다: "국가는 지금부터 10년 후까지 적령인구 100%를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수준까지 교육 양성하고, 80%의 적령 인구를 Baccalaureat 수준까지 교육 양성한다".

또한, '89년 교육법은 서기 2000년의 2대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 취업능력, 자격없는 졸업 지양

- 80% 적령인구의 Baccalaureat 수준까지의 교육화

한편, 교육당국은 2000년에 있어 80% 교육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서기 2000년 대학' 계획을 또한 설정한다.

'서기 2000년 대학'은 80% 교육목표를 지역사회의 실제 현장에 구체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실행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는 수도 파리의 고등교육 인구가 이미 포화된 점을 감안해 지방 지역사회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80% 교육목표, 교육정책은 지방의 고등 교육기관 확장 또는 신설로서 구체화된다 할 수 있겠다.

결국, '서기 2000년 대학' 계획은 지역사회의 기대치

럼 고등교육을 지방 분산화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며 교육과 취업이 별개인 이중적 교육의 거부를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목적 달성을 위해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 학과 수의 2배 증가가 요구되며, 특히나 지방 중간규모 도시에 STS 학과의 설립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프랑스 교육·경제연구소인 HCEE는 한 국가의 부는 국민교육의 교육수준과 직업기능 자격 정도에 있고, 학교는 이러한 국민 양성교육과 직업기능을 도야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89년 7월 10일 교육법 실행을 위한 실행 방안을 이론적인 시나리오로 담은 교육부 정책 보고서를 (HCEE, 2000년의 고용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적응(L'adaptation du systeme de formation aux emplois de l'an 2000), Paris, 1991) 발간한다.

HCEE의 이 이론적 시나리오는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자 분포와 요구되는 총 고용 직장 수(즉, 미래의 총 고용 직장 수에 대비한,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한 매년의 신규모집 고용자 수)의 변화를 예측하고 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들고 있다. 첫째는 경향 시나리오, 둘째는 졸업자 감안 시나리오, 셋째는 내부 상승 시나리오이다.

경향 시나리오는 내부 상승률을" 관찰시 비율로 고정할 것이며, 졸업자 감안 시나리오는 내부 상승률을 관찰시 비율의 2/3로 할 것이며, 마지막 내부 상승 시나리오는 관찰시 내부 상승률을 50% 증가로 정한 것이다. 결국, 이 시나리오들은 1988년과 2000년 사이에 요구되는 신규 고용자 수에 대비하여, 또한 필요한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2000년에 있어 졸업자 수와 총 고용 직장 수의 분포를 예측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1) 일정 교육 수준의 근로자가 다년간의 근무 후에 혜택받는 교육수준 상승의 혜택비율

(수준 I, II, III, IV, V, VI은 다음을 의미한다.)

수준 I-II	석사졸업 이상
수준 III	고등교육 초급과정(2년) 이상 석사졸업 전까지
수준 IV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등교육 초급과정 전까지
수준 V	중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수준 VI	중학교 졸업 전까지

### A) 1. 경향 시나리오

- 1989년과 2000년 간의 요구되는 신규 고용자 수의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수준 I-II	20%
수준 III	21%
수준 IV	21%
수준 V	29%
수준 VI	9%

- 신규 고용자 수에 대비한 교육수준에 따른 졸업자 수의 변천 분포

	1988	2000
수준 I-II	14%	25%
수준 III	12%	28%
수준 IV	19%	22%
수준 V	42%	19%
수준 VI	13%	6%

### 2. 졸업자 감안 시나리오

- 1989년과 2000년 간의 요구되는 신규 고용자 수의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수준 I-II	22%
수준 III	23%
수준 IV	22%
수준 V	26%
수준 VI	7%

- 신규 고용자 수에 대비한 교육수준에 따른 졸업자 수의 변천 분포

	1988	2000
수준 I-II	14%	28%
수준 III	12%	31%
수준 IV	19%	24%
수준 V	42%	14%
수준 VI	13%	3%

### 3. 내부 상승 시나리오

- 1989년과 2000년 간의 요구되는 신규 고용자 수의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수준 I-II	17%
수준 III	17%
수준 IV	17%
수준 V	38%
수준 VI	11%

- 신규 고용자 수에 대비한 교육수준에 따른 졸업자 수의 변천 분포

	1988	2000
수준 I-II	14%	18%
수준 III	12%	20%
수준 IV	19%	16%
수준 V	42%	35%
수준 VI	13%	11%

B) 시나리오에 따른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한 2000년의 총 고용 직장 수의 분포

	1982	1989	2000	
			졸업자 감안 시나리오	내부 상승 시나리오
수준 II	5.6%	7.9%	2.5%	11.2%
수준 III	5.8%	7.6%	12.9%	11.2%
수준 IV	11.3%	11.1%	14.7%	13.2%
수준 V	22.0%	27.8%	29.7%	33.1%
수준 VI	55.3%	45.6%	30.2%	31.2%

위의 시나리오에서 수준 V의 신규 고용자가 1989년과 2000년 사이의 필요한 신규 고용자 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 상승 시나리오의 경우가 두드러진다(38%). 또한, 신규 고용자 수에 대비한 졸업자 수 변천 분포에서는 1988년의 수준 V가 역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2%).

한편, 신규 고용자 수에 대비한 졸업자 수의 변천 분포는 2000년에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 상승을 보여주는데, 졸업자 감안 시나리오가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며, 그 다음 경향 시나리오, 내부 상승 시나리오 순이다.

그리고, 2000년에 있어서의 총 고용 직장 수의 분포는 수준 VI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수준 VI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준 IV 대신에 수준 V, VI이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2000년에 있어서의 총 고용 직장 수의 분포는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80% 교육목표와 불일치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실제 직장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와 교육받는 시기와의 차이에서 생김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0년에 있어서의 졸업자 분포는 내부 상승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는 80% 교육목표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프랑스의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해결 대응책으로서 교육정책, 개혁은 1984년 1월 26일 교육법과 1989년 7월 10일 교육법에 의해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교육법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함을 그 근본 목표로 하며, 대중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방화·다양화의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유급, 중도탈락 지양의 직업교육과 80% 적령 인구의 Baccalaureat 수준까지의 교육화는 그 구체적인 실행 정책이라 하겠다. 특히, 1989년 7월 10일 교육법은 대중 고등교육에 있어 문제 해결책이 아닌 발전 교육책으로, 프랑스 '90년대 고등교육 정책의 현 주소를 말해 주고 있다.

## 5. 프랑스 고등교육 정책, 개혁의 적용결과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84년 1월 26일 Savary 교육개혁 이후, 기존의 대학 1, 2년의 초급과정인 DEUG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혁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초급과정인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DEUST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개혁 후, 개혁결과 평가는 우선은 긍정적이다. 국립 평가 위원회인 CNE 평가팀은 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sup>2)</sup>

"개혁의 긍정적 결과는 전적으로 인정되었다. '84년 직후부터 개혁된 대학 초급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확실시되었으며, 학생들은 성실한 학업태도를 놀랄 만큼 되찾았다. 또한, 1학년 1학기 중의 중도탈락은

1/3이나 감소되었으며, 초급과정의 졸업 가능성 역시 늘어났다."

한편, 전망 평가 연구소 DEP의 연구결과 역시 개혁 후에 대학 초급과정의 교육적 손실이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sup>3)</sup> 의하면, 대학 1학년에 등록한 학생이 2년, 3년 또는 4년 후에 대학 3년 과정에 이를 확률은 '93년에 53%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87, '88, '89년에는 각각 45.1%, 47.7%, 51.77%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 직업문제를 연구하는 CEREQ 연구소 역시 연구조사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소는 '83년과 '88년 Baccalaureat 합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학업시작 4년 후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우선 '83년과 '88년 사이의 고등교육 전체의 초급과정의 학생 중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음을 보여주고 있다(19%:'83년, 15%:'88년). 이는 특히, 대학 초급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19%:'83년, 13%:'88년).

프랑스 '89년 7월 10일 교육법 적용을 위한 제반 교육 정책들의 평가 또한 역시 긍정적이다. 우선은, 적령인구 중 Bacclaureat 취득자의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33.5%:'81년, 58.3%:'91년, 63.6%:'96년).

또한, 교육 경제 연구소 HCEE 보고서의<sup>4)</sup> 80% 적령 인구의 Bacclaureat 수준의 교육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결론은 대중교육의 예측된 결과를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특히, 1987년 이후의 고등교육 수준별 졸업자 변천 분포가 이에 해당한다.

CEREQ 연구소의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지지하고 있다.<sup>5)</sup>

2) CN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masse』, Paris, 1990

3) DEP, 『Les transformations quantitatives et qualitatives de l'enseignement supérieur』, Note d'information 92.22, Paris 1992

4) HCEE, 『L'adaptation du système de formation aux emplois de l'an 2000』, Paris, 1991

5) HCEE, 『Education économie』, N 11, 4-5-6월 1991, Paris

“80년대의 교육 시스템 졸업자(수준 I, II, III)의 분포는 대략 기업의 신규모집 고용 수의 분포와 일치된다. 이것은 졸업생의 좋은 취업조건이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CEREQ 연구소의 각 고등 교육기관 졸업생의 교육내용과 취업직장 관계의 최근의('94년~'95년) 연구 조사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년제 단기 실업전문기관(IUT, STS)의 교육내용과 취업 직장간의 높은 상관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침내, 전망 평가 연구소 DEP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6)</sup>

“1989년 7월 10일 교육법은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그 목표에 이르고 있다.”

## 6. 결 론

지금까지 대중화 시대의 프랑스 고등교육 학생인구의 변화, 교육제도, 문제점, 교육정책, 개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프랑스 고등교육의 발전과 변화의 살핍은 한국 교육 및 교육 전반에 걸쳐 좀 더 속고의 계기를 갖게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산업화 시기도, 또한 충분한 정치 민주화 시기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교육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나, 한 개인의 행복과 출세를 위해서나 절대적 변수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과거 30여 년 군부출신의 독재적 정치체제는 한국의 교육, 특히 최상위 교육기관인 고등교육 변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겠다.

정부 당국은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우수 노동인력을 위해 많은 수의 대학인력을 양성해야 했으며, 또한 동시

에 독재 정치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의 결단적 항의로부터 자신을 보호, 방어해야 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고등교육을 개방함과 동시에, 단호한 중앙 집권적 통제 교육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통제 교육정책은 한국 교육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고, 한국사회 전반에서 그렇듯이 교육에 있어 자유의 공간과 진실의 시간을 앗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가치의 본모습은 사라지고,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서구 물질주의와 생활양식이 동양 유교문화와 한국의 전통 생활양식의 사라진 자리를 아무런 숙고와 반성 없이 대신하게 되며, 결국 국가 교육정책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 교육의 비정상화가 시작된다. 정부 당국은 국민경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양질의 다수의 생산자 양성에 급급하게 되고, 개인은 최고 대학의 졸업장을 위하여 또는 판·검사, 외교관 그리고 고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국가고시 합격을 위하여 오랜 준비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히, 지식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오게 하고,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르는 과외 부조리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 교육의 비정상화 현상은, 경제논리에 따르는 교육의 대중화가 가속됨에 따라 심화된다. 따라서 점점 더해가는 국제경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구의 증가 앞에 학생 개인은 인간 개체가 아닌 한 생산자로 전락되며, 결국 학교에서의 도덕성과 인간적 의미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비정상화는 학교에서의 도덕성과 인간적 의미의 가치 상실을 불러오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한국 교육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한편 프랑스, 한국을 막론하고 현 사회의 극도의 경제논리하에서 교육의 대중화는 불가피하며 우리 현 사회의 근본 문제가 된다.

경제논리하에서의 교육의 대중화는 경제적 필요에 의

6) DEP, 『Education et formations』, N 38, 9월, Paris

해 질적, 양적으로 근로자를 양성하는 가운데 학교를 하나의 생산수단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경제논리는 물질만능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러한 물질만능주의는 학교의 도덕적·인간적 의미 가치부여의 역할을 앗아가게 되었다.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직장 생활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배우기에 급급하고, 국가는 급증하는 사회, 경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를 노동인력 양성기관으로 변화 발전 시키기에 급급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도덕적, 인간적 배움의 시간과 공간은 물질적 수단과 방법의 획득에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으며, 결국, 학교는 공장, 기업화되며 학생은 생산상품화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제도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경제논리하의 대중교육의 최고의 결과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인간적 의미의 가치 상실은 비단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문명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사고 영역을 더 넓히면 마침내 인간 삶의 무의미성으로까지 확장되는 철학적 문제가 되고 만다. 즉, 세계와 인간 자체가 도덕적, 인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문명의 발전 속에 겪는 도덕적, 인간적 의미의 가치 상실은 분명히 인류의 큰 불행이며, 건전한 새 사회의 회복을 위해 당연히 비판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세계와 인간의 기존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와 인간의 무가치의 진리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 개인의 혼동에서 오는 또는 상상력의 결과라면, 경제논리하에서의 교육의 대중화에서 오는 학교에서의 도덕적, 인간적 의미의 가치 상실 회복의 노력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인간 삶의 가치의 존재 여부의 문제로서, 인류 역사 이래 끝없이 되풀이 되어 온 또 계속되어야 할 철학적 주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인간적 의미의 가치 상실은 비판적 대상

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당연한 귀결적 결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 대중화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에 있어서의 도덕적, 인간적 의미의 가치 상실은 단순히 교육정책상의 문제가 아닌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숙고될 철학적 문제라 하겠다.

오늘날 교육은 각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요구 그리고 철학적 가치가 그 어떤 것이든간에 그 중요성은 확연하다. 그러나 교육방향, 교육내용은 전혀 명확하다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더 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혼동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오늘날의 교육정책, 개혁을 평가, 분석함은 교육정책, 개혁이 얼마나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켰나로 판단될 수 없고, 교육과 교육기관에 요구되는 내·외적 문제와 모순을 얼마나 잘 소화, 운영, 관리했느냐로 판단된다.

교육에 요구되던 경제논리는 이렇게 운영, 관리논리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사회에 가속화되는 경제·과학기술의 발달과 또한 지방 분권의 지역화 현상 가속화와 더불어 더욱더 확인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예측하기 어려운 급속한 변화와 발전은 단 기간에 진행되며, 극히 지역 분산화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경제·과학기술의 변화와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단체와 학교 기관들은 지방 분권의 지역화에 맞추어 충분한 자율적 행정·경영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 행정·경영은 각 지역, 각 시점에 따르는 고유의 특이한 교육정책, 개혁을 급변하는 사회변화 요구에 맞춰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지만 결국에는 각각의 엇갈리는 제반 문제와 모순을 동시에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교육정책, 개혁은 분명 어려운 직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 시대, 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체자의 양성 과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 정치가, 철학자, 교육학자,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 - 급선무이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ALLEGRE(Claude), 『L'age des savoirs pour une renaissance de l'universite』, Le debat - gallimard, Paris, 1994
- CHARLOT(Bernard), 『L'ecole en mutation』, Payot, Paris, 1987
- CNE, 『ou va l'Universite』, Gallimard, Paris, 1982
- CNE, 『L'enseignement superieur de masse』, Paris, 1990
- DEP, 『Les transformations quantitatives et qualitatives de l'enseignement superieur』, Note d'information 92.22, Paris 1992
- DEP, 『Education et Formation』, N 38, 1994년 9월, paris
- DEP, 『Concours de recrutement de professeurs des ecoles』, Note d'information 96.41, Paris 1996
- HCEE, 『Education economie』, N 11, 4-5-6월 1991, Paris
- HCEE, 『L'adaptation du systeme de formation aux emplois de l'an 2000』, Paris, 1991
- INRP, 『Recueil des lois et reglements de l'education nationale』, Paris

- INSEE, 『Annuaire retrospectif de France 1948~1988』, 1990, Paris
-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Reperes&references statistiques 1998』, Paris
- PROST (Antoine), 『Histoire de l'enseignement en France 1800~1967』, Armand Colin, 1968, Paris
- UNESCO, 『Annuaire statistique』, Paris

김성룡

아주대 불문과 2년 수료 후 도봉 프랑스 Paris 8 대학에서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 마치고 비교 교육정책 전공의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프랑스 Lyon 3대학 철학박사(쇼팽하우어전공)과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post Doc 과정중이며, 또한 아주대 교육학 강사로 출강중이다. 연구논문으로는 『교육의 대중화에 따르는 프랑스 고등 교육정책(1960~97)과 한국 고등 교육정책(1970~97)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다.